

[새사연 월례강좌] 2강

2008 한국경제,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 목 차 >

프롤로그. 금융 위기의 세계화와 거품경제의 한계

1.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기와 오류의 세계화
2. 저고용, 저소득에 기초한 신용팽창 소비 경제의 한계

I. 외부 금융충격에 취약한 한국의 금융시장

1.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변동을 보인 외환시장
2. 과잉 수익추구로 위험도에 노출된 한국의 상업은행
3. 외국인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자본시장의 충격

II. 내수기반 없는 수출경제의 취약성 노출한 실물경제

1. 어두운 2009년 경제전망
2. 시작된 수출둔화와 그 영향
3. 중소기업에서 실체화될 실물경제의 타격
4. 이미 구조 조정된 자영업의 재구조조정
5.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미칠 고용축소 충격

에필로그. 위기를 구조전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이슈

프롤로그.
금융 위기의 세계화와
거품경제의 한계

1.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기와 오류의 세계화

① '경제의 금융화'와 '금융의 세계화'. 지난 30여 년 간 영미권을 중심으로 금융 비중의 팽창과 제조업 위축, 그리고 금융기법의 혁신이 급격히 진행

② 1980년대 이후 금융부흥을 이끌었던 선물, 옵션, 스왑 등의 각종 파생상품은 실제로는 위험을 분산(Hedge)시기 보다는 오류와 위험을 확산하는 매개자로 기능

③ 급팽창한 금융부문의 위험성이 누적되도록 방조한 것 역시 큰 원인. 헤지펀드, 사모펀드, 투자은행, 심지어는 상업은행들조차 규제를 피해 위험한 도박을 벌임

④ 위기가 표면화된 후에도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정부가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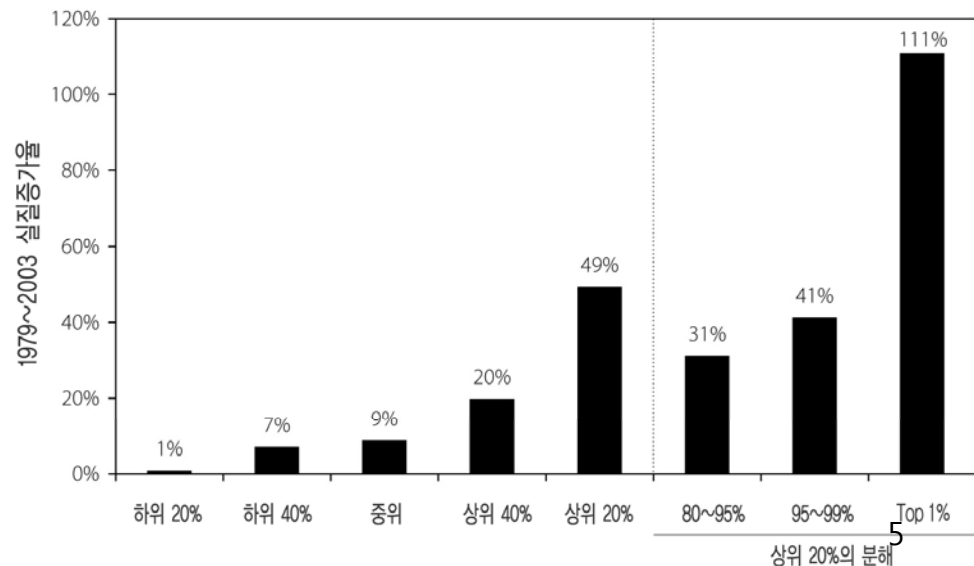
2. 저고용 저소득 기반 신용팽창 소비경제의 한계

▶ 미국경제 구조는 고용과 소득이 아닌 신용창출(부채)에 기초한 소비로 지탱

▶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늘려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성장은 멈춤

▶ [소득향상 - 예금 - 대출 -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투기 - 버블 - 소비]의 취약한 버블경제로 전환

1979~2003년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



I.
외부 금융충격에 취약한
한국의 금융시장

- ▶ 미국 발 금융위기는 특히 9,10월 국내 외환시장과 자본 시장 등 금융시장에 심각한 충격
- ▶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본시장의 전면개방,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반영(금융충격에 대한 완충장치 미비)
- ▶ 미국경제에 대한 신흥시장의 탈동조화(decoupling) 경향은 상품무역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남
- ▶ 금융시장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강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입증(재동조화, re-coupling)

I. 외부 금융충격에 취약한 한국의 금융시장

1.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변동을 보인 외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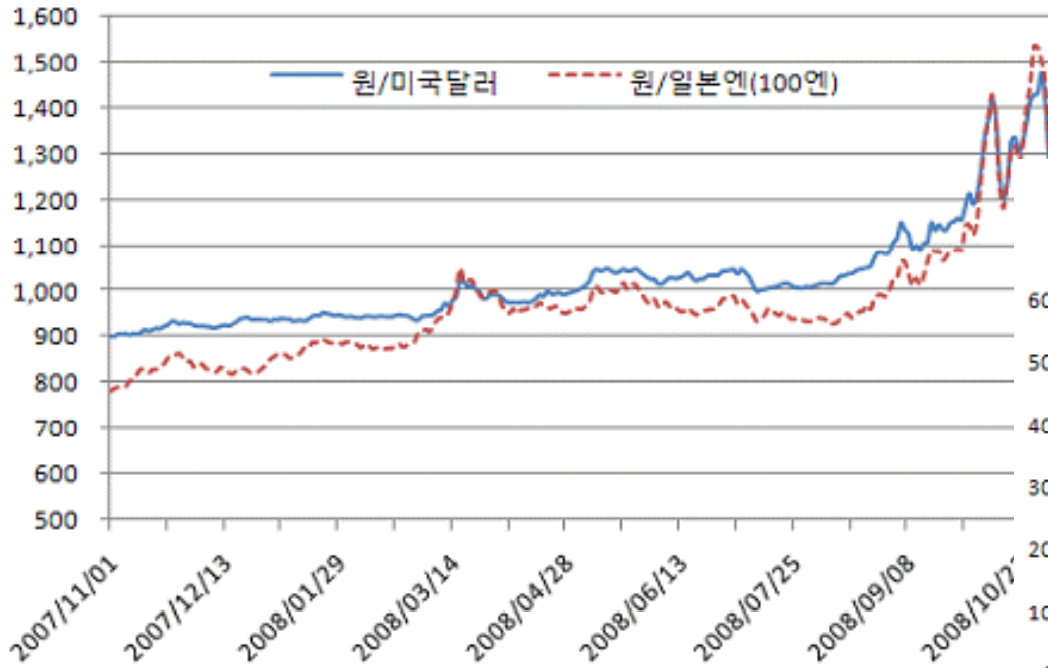
2. 과잉 수익추구로 위험도에 노출된 한국의 상업은행

3. 외국인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자본시장의 충격

1.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변동을 보인 외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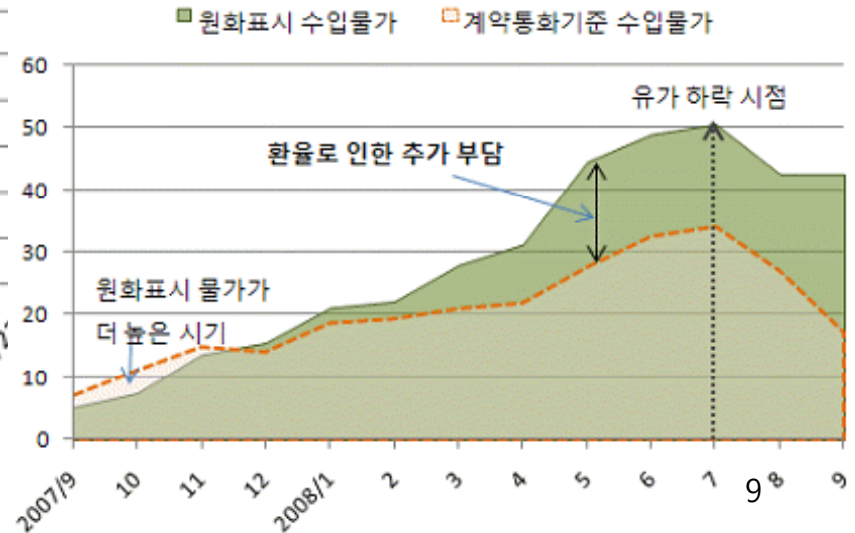
- ▶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치의 등락과 무관하게 고공행진
- ▶ 수출기업에게는 호재, 그러나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겨 소비자물가, 수입원자재가 등 급등

원 달러, 엔 환율 변동추이(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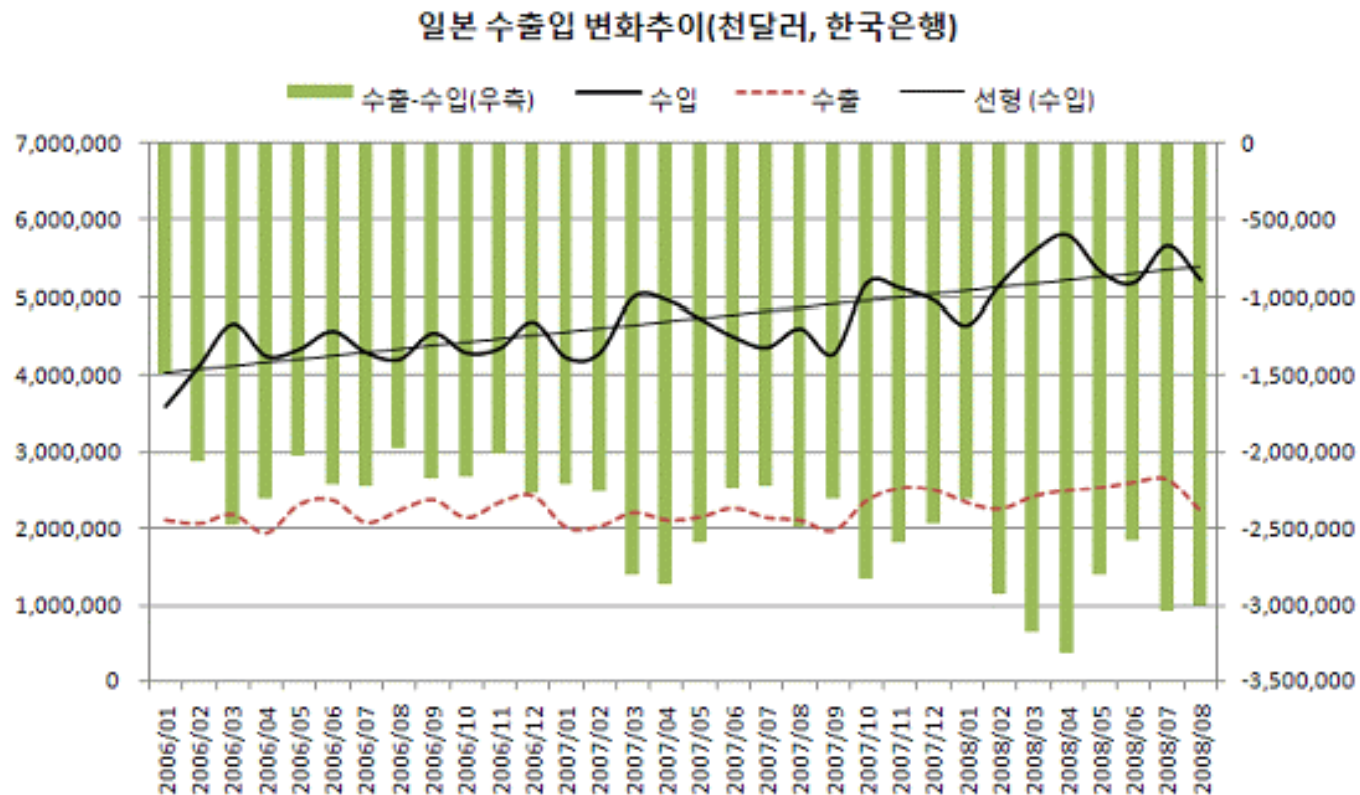
원화 초약세가 시작된 2007.11 부터 원화표시 수입물가는 달러화표시 물가를 역전.
7월 147달러까지 치솟은 원유가가 폭락한 뒤인 9월에도 원화표시 수입물가는 8월과 같은 42.6퍼센트 유지.

수입물가 상승률(2005=100, 한국은행)



1.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변동을 보인 외환시장

- ▶ 원달러 환율보다 더 큰 폭으로 원엔 환율 상승
- ▶ 대일 부품소재 수입구조에 직간접적 영향을 줘 올해 1~8월 대일 무역역조 약 230억 달러(누적)



1.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변동을 보인 외환시장

▶ 환율상승과 달러부족 현상의 원인

- ① 2008년 들어 시작된 경상수지 138억 달러 적자(9월까지 지속)
- ② 2007년 6월부터 이어진 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달러화 환전송금
- ③ 조선업 수출액 선물환 매도물량과 해외펀드 헤지물량
- ④ 일부 역외 환투기 세력의 개입 등

1.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변동을 보인 외환시장

- ▶ 9, 10월 국제 신용경색으로 국내외 은행간, 기업간 달러 유통이 중단되면서 환율은 급상승, 외환위기 노출
- ▶ MB정부는 10월 초까지 외환시장에 외환보유고를 푸는 방식으로 개입하나 효과가 하루를 넘기지 못함
- ▶ 이후 외환스왑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 은행권에 달러 지급보증과 직접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

- 결론 -

분명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환율이 요동치고 일부 NDF(역외선물환)시장에서의 환투기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할 정책적 기제는 전무

I. 외부 금융충격에 취약한 한국의 금융시장

1.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변동을 보인 외환시장

2. 과잉 수익추구로 위험도에 노출된 한국의 상업은행

3. 외국인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자본시장의 충격

2. 과잉 수익추구로 위험에 노출된 국내 상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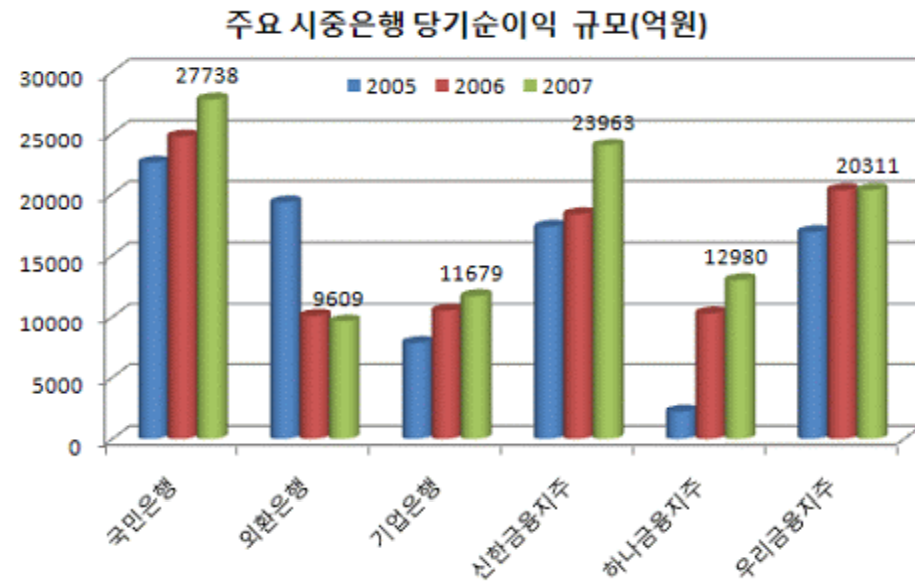
- ▶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미국 투자은행들(IB), 9월까지도 국내 시중은행들은 안전할 것이라 낙관
- ▶ 10월 들어 오히려 국내 은행권이 위기의 진원지로 돌변하고, 외신발 외환위기도 대부분 은행권 겨냥
- ▶ 10월 정부의 금융안정화 대책은 대부분 은행권을 대상으로 함(1000억 달러 지급보증, 300억 달러 자금 직접지원, 은행채 직접 매입, 유동성 비율 완화 등)

2. 과잉 수익추구로 위험에 노출된 국내 상업은행

▶ 외환위기 이후 자금 중개기능보다 수익 추구에만 몰두해 규모화 겸업화 단행.

▶ 지난해까지 시중은행들은 조 단위 이익 실현, 순이익의 절반 이상은 현금배당(대부분 외국인 주주의 몫)

▶ 수익성 위주 경영과 규모화 압박은 무리한 대출 영업 강요(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2006년 과잉 주택담보대출), 보험/펀드 판매 수수료 수익에 집착하는 결과 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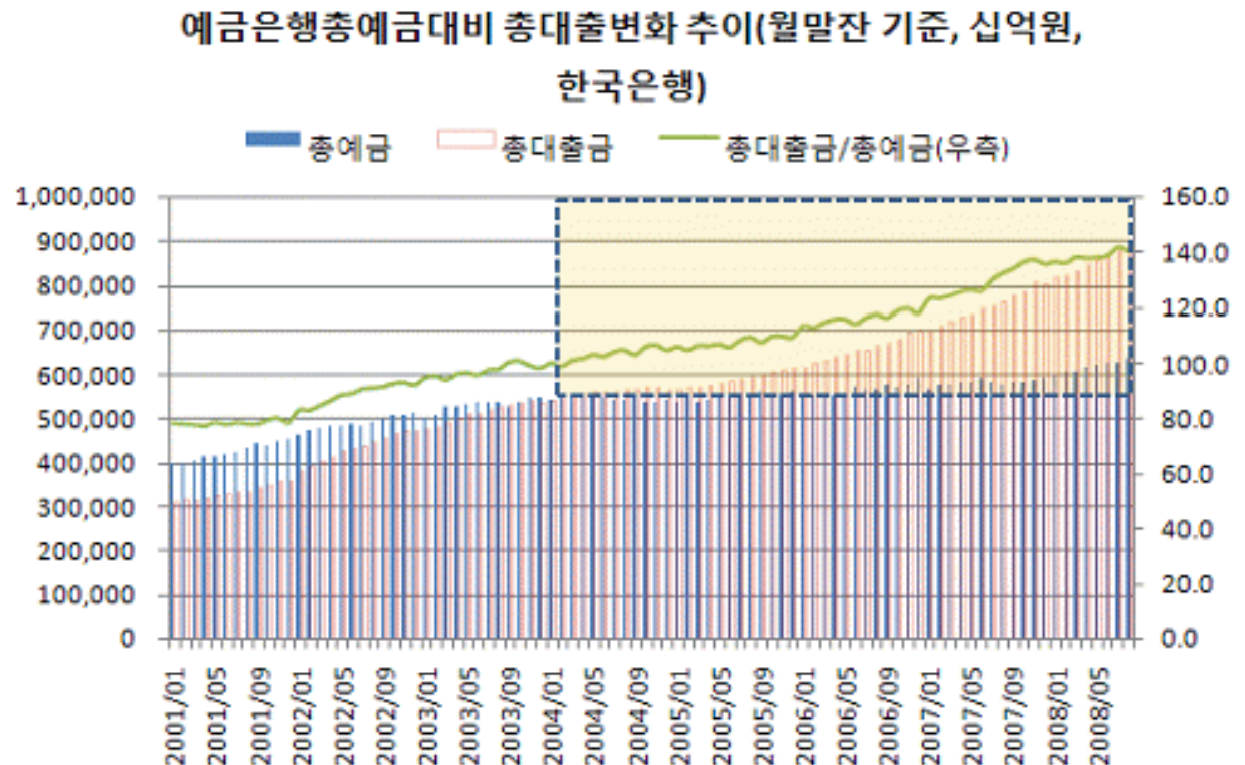
2. 과잉 수익추구로 위험에 노출된 국내 상업은행

- ▶ 2006년 이후 증시와 펀드 호조로 시중자금이 주식시장과 펀드로 몰리면서 저축성 수신 감소
- ▶ 금융기관유동성(Lf)에서 저축성은행수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말 42.4%에서 2008년 상반기 33.5%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펀드 잔액은 14.7%에서 19.9%로 증가

2. 과잉 수익추구로 위험에 노출된 국내 상업은행

▶ 예금수신액을 뛰어넘는 대출 증가, 즉 예대율 증가 발생

▶ 예금은행의 총
예금 대비 대출비
율은 08년 8월말
현재 말잔 기준으
로 149.2%
(총 예금잔액은
635조원, 대출잔
액은 89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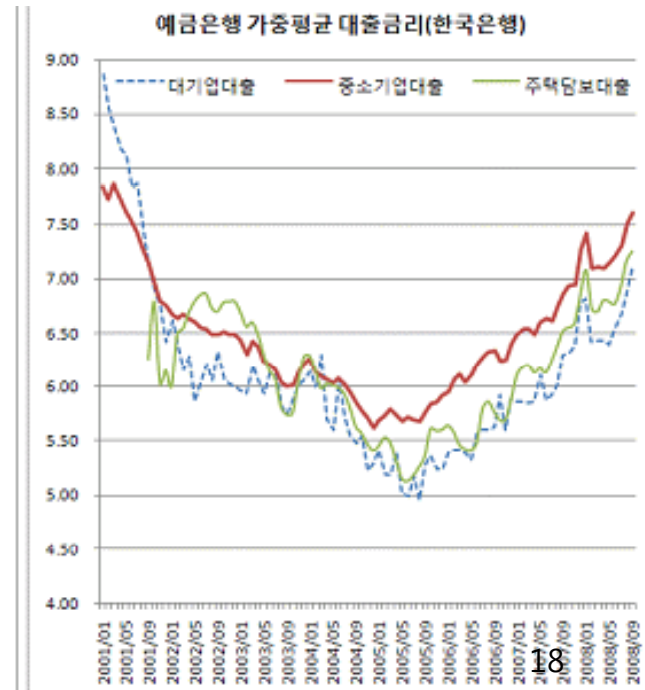


2. 과잉 수익추구로 위험에 노출된 국내 상업은행

▶ 은행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은행채, CD 등 시장성 수신을 대폭 늘림

▶ 총 자본조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잔 기준으로 21.4%. 만기불일치로 인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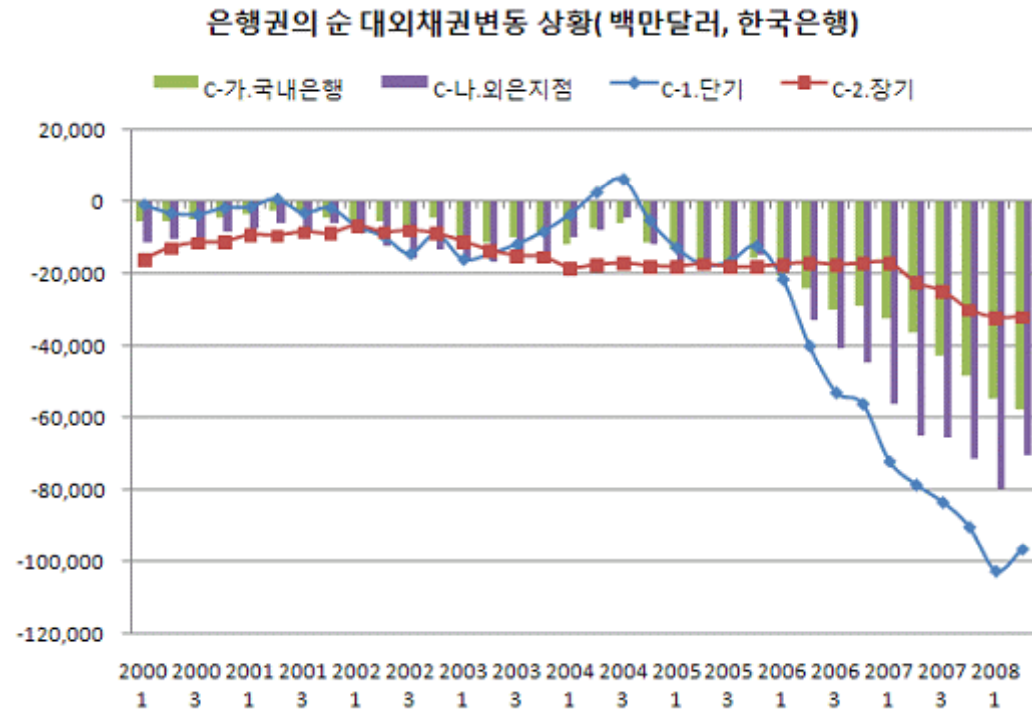
▶ 최근 자금경색 심화되면서 문제 현실화
-> 대출회수에 대한 부담 가중, 과잉발행 된 CD, 은행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



2. 과잉 수익추구로 위험에 노출된 국내 상업은행

▶ 외화유동성도 심각한 문제. 2005년 이후 은행들이 단기 대외차입을 급격히 늘림(2008년 10월 800억 달러 규모)

▶ 9,10월 달러유동성 경색으로 만기연장 불가능해짐은 물론, 추가 차입 단절, 수출대기업들의 수출대금 보유경향으로 은행들은 극심한 달러 부족에 직면(은행 발 외환위기설의 원인)



미국과 통화스왑계약 체결로 일시적 안정세. 그러나 08년 1월 6,618억 달러이던 외환보유고가 10월말 2,122억 달러로 감소. 경상수지 적자로 감소한 금액을 감안해도 줄잡아 300억 달러 이상 소진

I. 외부 금융충격에 취약한 한국의 금융시장

1.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변동을 보인 외환시장

2. 과잉 수익추구로 위험도에 노출된 한국의 상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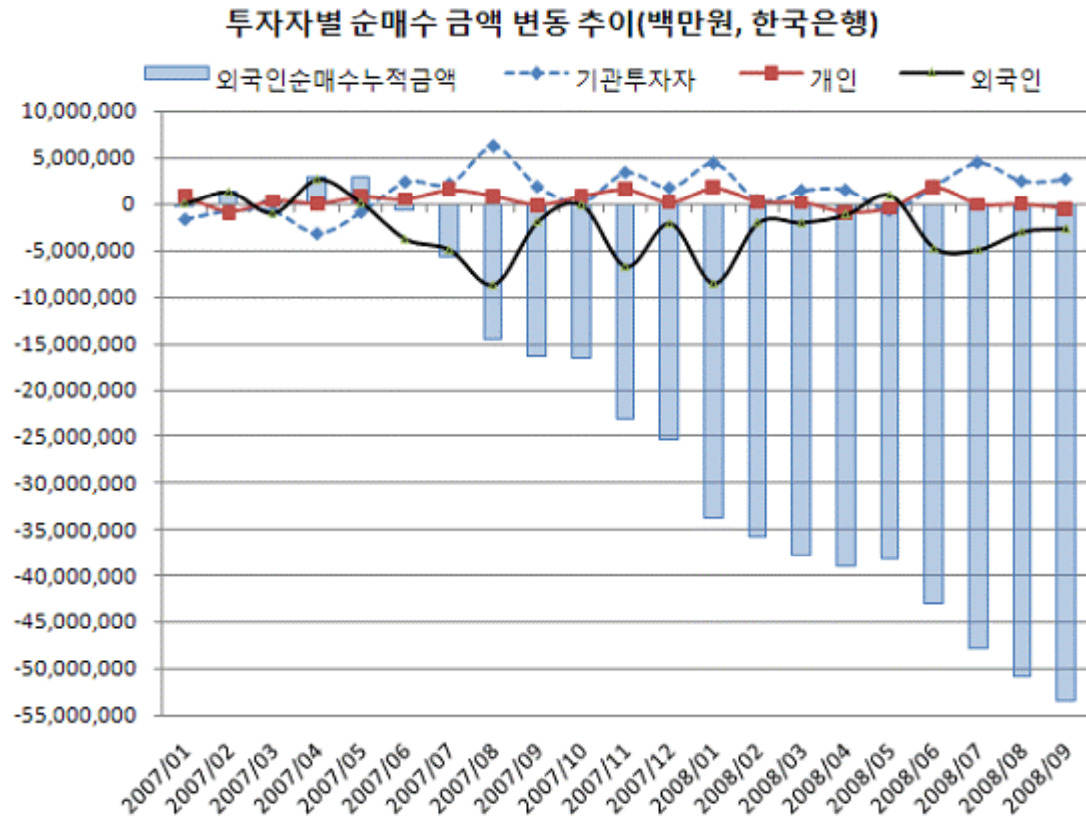
3. 외국인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자본시장의 충격

3. 외국인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자본시장의 충격

▶ 10월 한달 간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각각 4조 9천억원, 4조 1천억원 순매도

▶ 08년 10월까지 외국인 순매도액은 41조 8천억원. 비중은 2000년 이후 8년 만에 30퍼센트 밑으로 하락

▶ 고금리를 노려 매수세를 유지하던 채권마저 대규모 매도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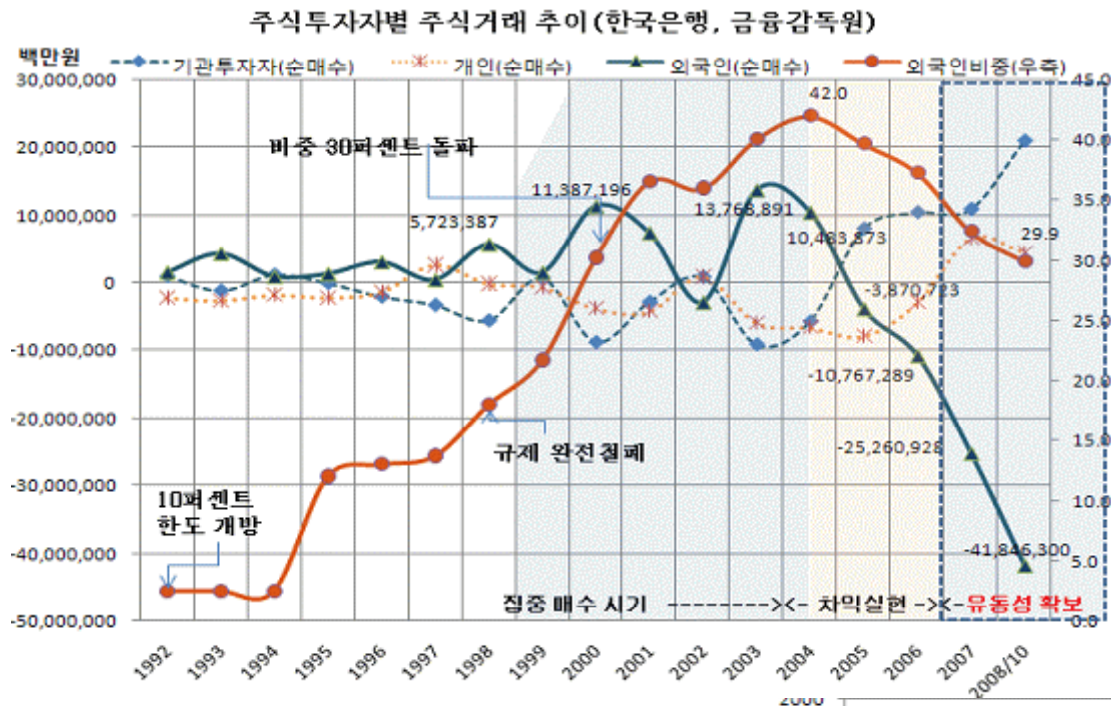


주가는 정확히 1년 만에 반토막, 80퍼센트나 떨어진 종목도 무려 20여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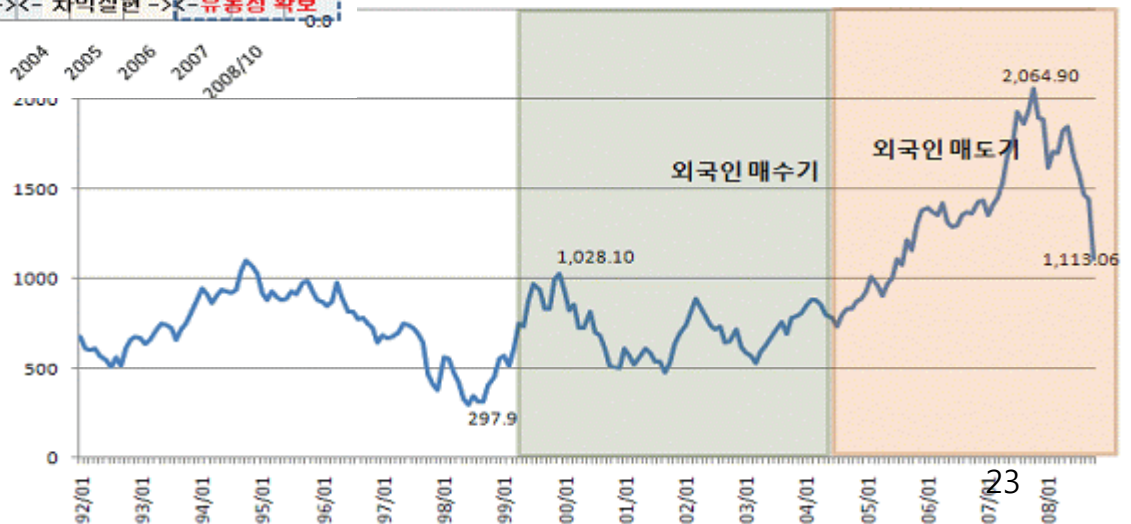
3. 외국인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자본시장의 충격

- ▶ 1992.1.3 국민주 제외한 모든 종목에 대해 외국인 1인당 3퍼센트, 종목당 10퍼센트 한도에서 외국인 투자 허용
- ▶ 외환위기 계기로 1998.5.25 외국인 투자제한 사라짐
- ▶ 외국인 직접투자보다는 주식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외환위기 여파로 300선 밑돌던 증시는 외국 금융자본에게 헐값에 주식을 매수할 절호 기회
- ▶ 2000년 들어 외국인 지분율은 30% 돌파, 2004년 40% 돌파(멕시코와 유사한 수준)

3. 외국인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자본시장의 충격



월말 주가지수 추이 (80.1.4=100)



3. 외국인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자본시장의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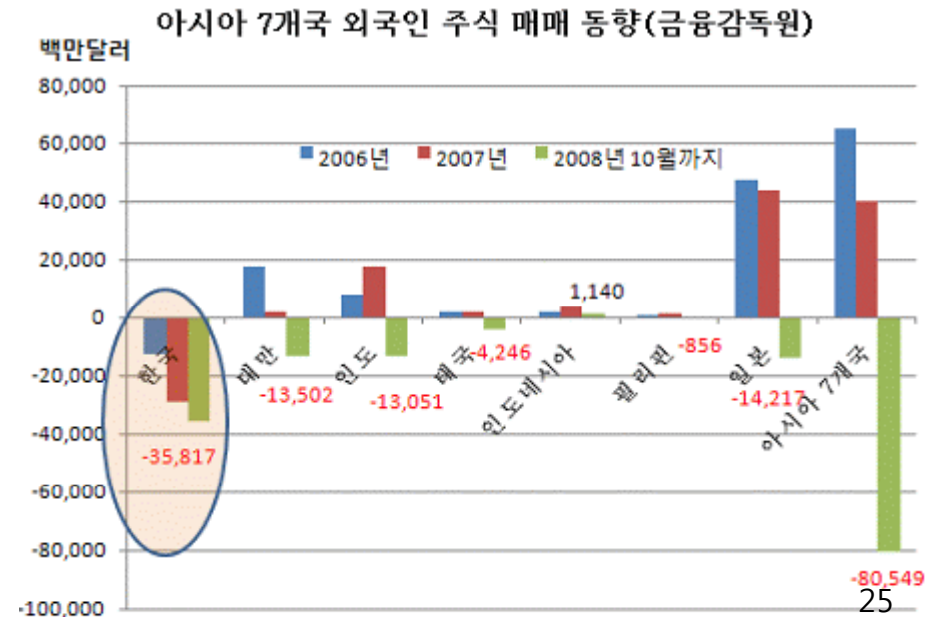
- ▶ 2005년 이후 본격적인 차익실현 개시
- ▶ 2005년 1월 코스피지수 1000p를 돌파.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막대한 차익 실현에 성공(05~07년 회수금액은 39조 9천억원)
- ▶ 결국, 99년~04년 42조원의 자금 투자(지분율 24% 증가) 해, 05~07년 10% 지분만을 팔아 투자원금에 가까운 40조 원 회수(14%지분은 순평가 이익)

3. 외국인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자본시장의 충격

▶ 2007년 6월 서브프라임 부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이후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게된 외국 금융자본이 신흥시장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시작

▶ 2007년부터 외국인이 대규모 주식매도에 나선 국가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

▶ 2008년도 주식매도 비중은 한국이 압도적. 특히 2007년 하반기부터 금리차이를 노린 채권투자가 잠깐 늘어났지만 2008년 10월 들어서는 이마저도 매도로 전환



3. 외국인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자본시장의 충격

- ▶ 주가가 가파르게 폭락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투자가 대규모 매수
- ▶ 10월 들어 투신권 포함한 기관투자가마저 펀드런에 대비해 매도세로 전환(코스피지수 1000선 붕괴)
- ▶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던 2007년 한 해 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80만 명 증가(2007년 말 444만 명)
- ▶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은 여전히 29% 안팎(일반적인 선진국 수준은 25%)

3. 외국인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자본시장의 충격

- ▶ 결국 투자 유치를 위해 무제한으로 개방한 자본시장이 금융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위기 증폭
- ▶ 그 피해는 440만 직접투자자와 2000만 펀드투자자의 몫

- 결론 -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본시장 전면개방, 국내 시중은행의 외국지분 과다로 수익추구형 '금융회사'로 변질, 금융시장 구조 전환 등으로 인해 내성을 키우고 금융안정성이 강화되긴커녕 금융위기에 극히 취약한 체질로 전락

Ⅱ.

내수기반 없는 수출경제의 취약성 노출한 실물경제

Ⅱ. 내수기반 없는 수출경제의 취약성 노출한 실물경제

1. 어두운 2009년 경제전망

2. 시작된 수출둔화와 그 영향

3. 중소기업에서 실체화될 실물경제의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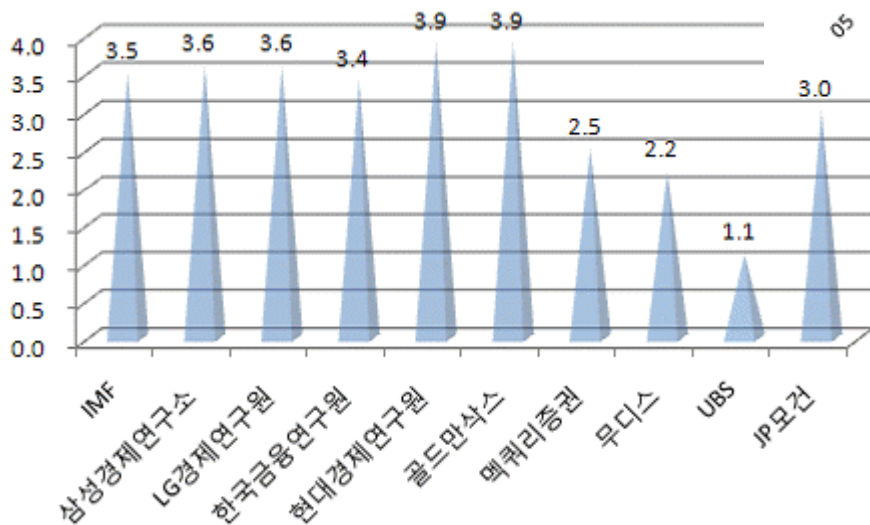
4. 이미 구조 조정된 자영업의 재구조조정

5.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미칠 고용축소 충격

1. 어두운 2009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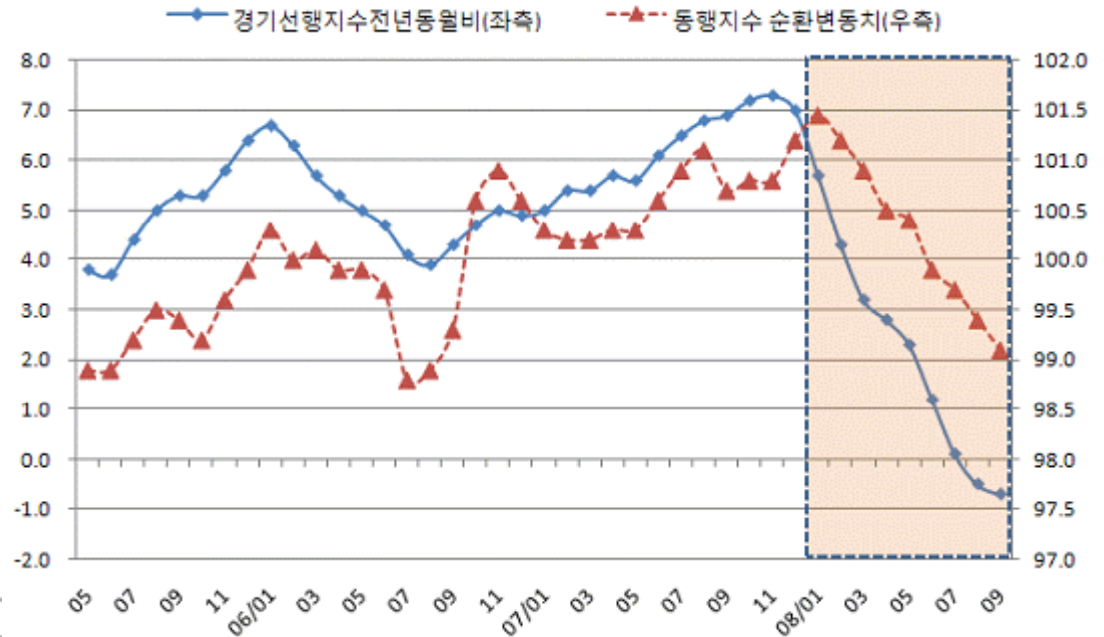
▶ 피치가 전망한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1%.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선진국들이 0% 전후에 머물 것으로 예상

2009년 한국경제성장 전망치(10,11월 발표)



경기종합지수 변동추이(통계청)

* 2008년 7,8,9월은 잠정치



2008년 한국 경제성장률 1/4분기 5.8%에서 2/4분기 4.8%, 3/4분기 3.9%로 분기마다 1%씩 하락.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4.1%.
각 기관이 전망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1~3.9%

Ⅱ. 내수기반 없는 수출경제의 취약성 노출한 실물경제

1. 어두운 2009년 경제전망

2. 시작된 수출둔화와 그 영향

3. 중소기업에서 실체화될 실물경제의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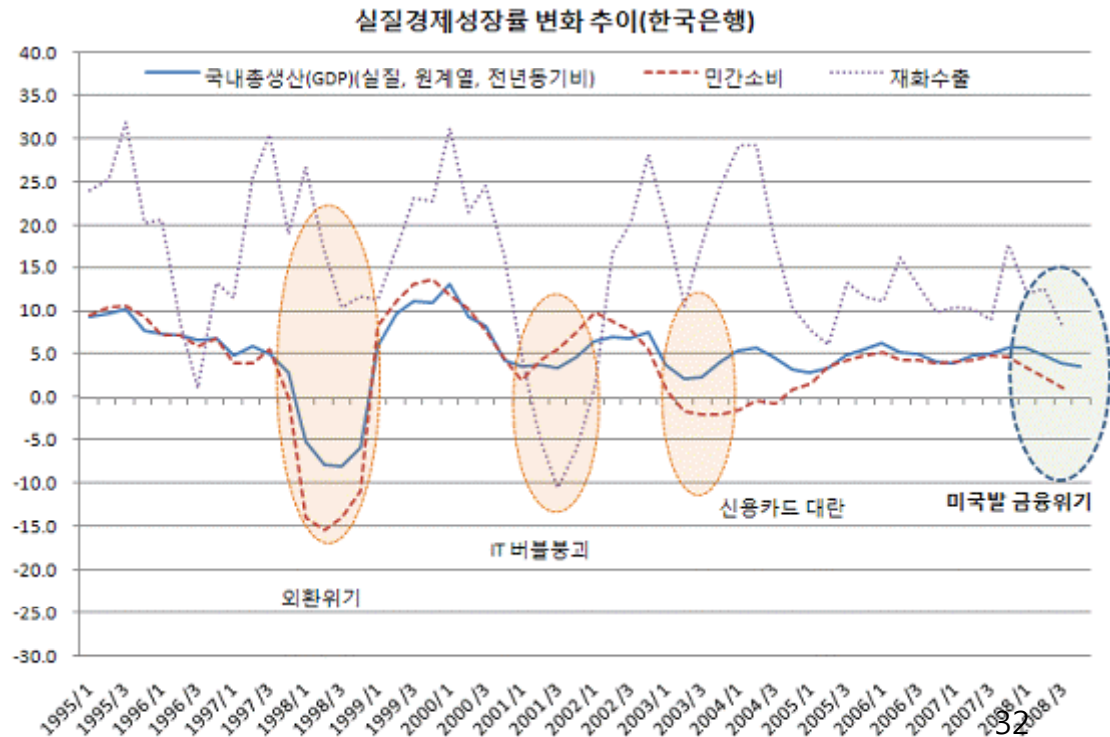
4. 이미 구조 조정된 자영업의 재구조조정

5.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미칠 고용축소 충격

2. 시작된 수출둔화와 그 영향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내수는 부진을 면치 못함. 그 결과 2005년 기준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일본보다 2배 이상 높은 28.2%(95년 24.9%)

▶ 수출의 수입유발 효과 증가로 수출의 내수 연관효과는 감소 (2005년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15로 10년 전의 0.698에 비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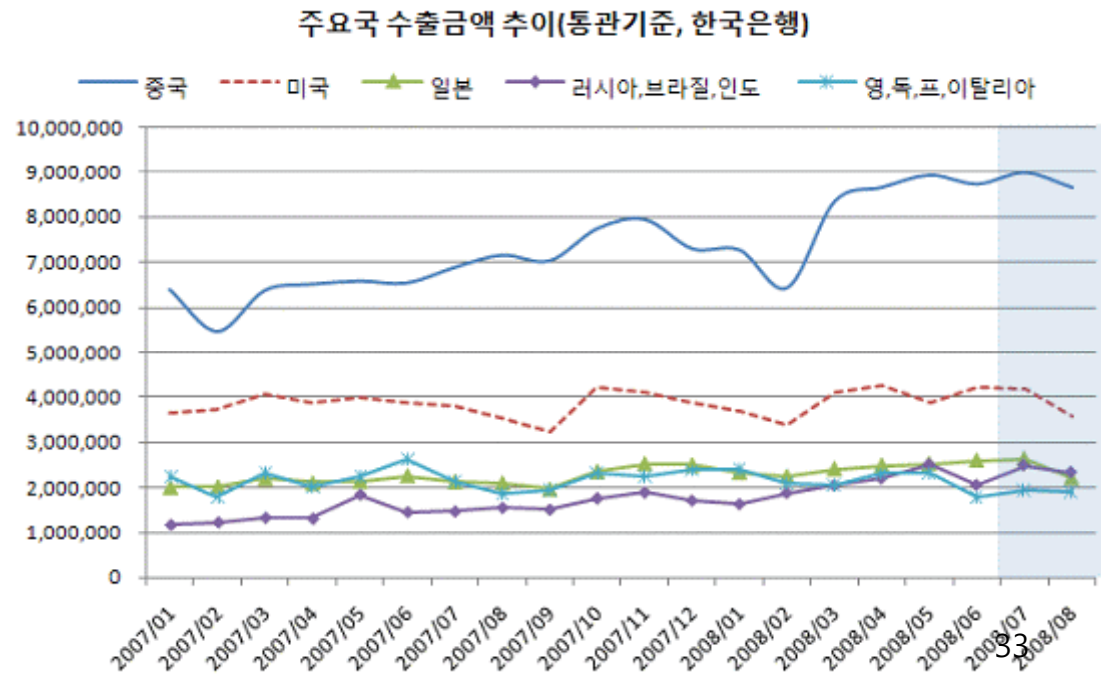


2. 시작된 수출둔화와 그 영향

▶ 2000년대 중후반 한국의 대미 수출비중은 10~13%로 감소. 중국 21~23%, EU 13~15%, 아세안 9~11% 비중 증가

▶ 올해 하반기 들어 중국경제도 본격적인 하강 국면 진입. 3/4분기 성장률 9.0%에 그침

▶ 차이나칭진국제신용평가(CCXI)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2007년 11.4%, 2008년 9.4%, 2009년 8.6%로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



2. 시작된 수출둔화와 그 영향

▶ 2009년 중국경제가 8% 성장에 그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사실상 제로(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앉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의 둔화는 기정사실화 될 것

▶ 즉 세계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 내수의 뒷받침 없이는 한국경제의 동반침체를 피하기 어려움

▶ 수출둔화는 외환시장 불안으로 치솟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도 부정적(10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이는 원유가격의 대폭 하락에 의한 수입증가율 둔화 때문으로 향후 무역수지 흑자를 낙관하기에는 이롭)

Ⅱ. 내수기반 없는 수출경제의 취약성 노출한 실물경제

1. 어두운 2009년 경제전망

2. 시작된 수출둔화와 그 영향

3. 중소기업에서 실체화될 실물경제의 타격

4. 이미 구조 조정된 자영업의 재구조조정

5.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미칠 고용축소 충격

3. 중소기업에서 실체화될 실물경제의 타격

- ▶ 외환위기 때는 대기업의 중복 과잉투자로 촉발된 위기가 은행 부실로 전파되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로 확산
- ▶ 반면, 현재의 위기는 중소기업, 자영업에서부터 누적되어 가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음
- ▶ 지난 10년 간 심화된 신자유주의 양극화로 이들은 이미 오랜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뎌왔으며 따라서 현재의 충격은 한계상황을 내모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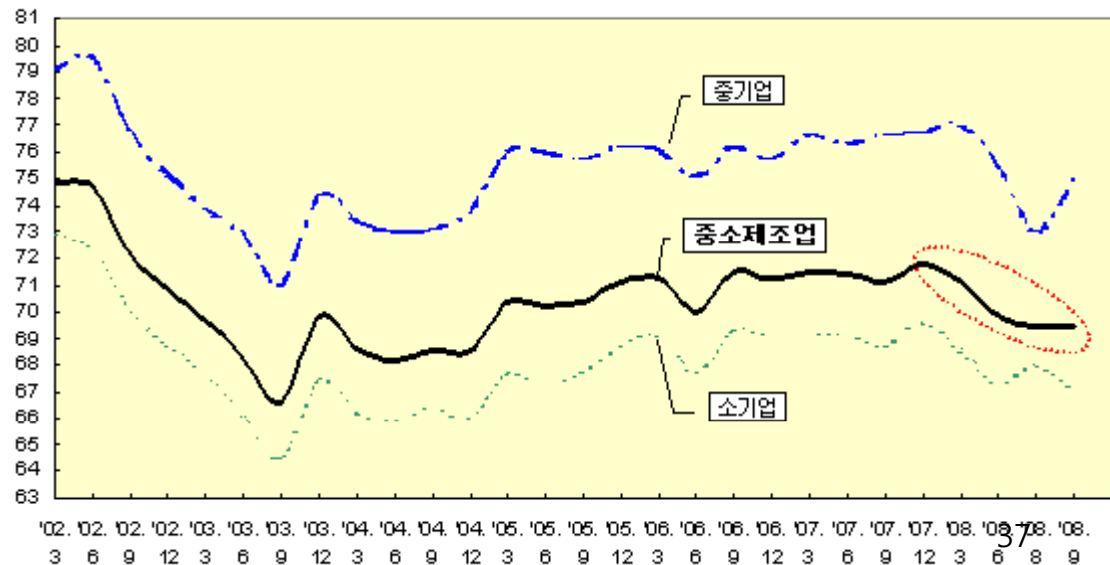
3. 중소기업에서 실체화될 실물경제의 타격

▶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92.5%(2008년 6월)까지 폭등한 원자재가격은 유가 폭락에도 여전히 59.1%(9월)의 인상률 유지

▶ 반면, 납품가는 제자리에 머물러 중소기업의 채산성은 한계에 봉착

▶ 그 결과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갈수록 하락해 08년 9월 현재 가동률 80% 이상인 중소기업체는 36.2%에 불과

중소제조업체들의 평균 가동률



3. 중소기업에서 실체화될 실물경제의 타격

▶ 중소기업의 요구는 납품가 연동제의 법제화, 차선으로는 산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교섭권 위임

▶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에 의한 자율교섭'을 내세우며 반대하다 중소기업들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이른바 '납품가 조정협의 의무제' 제시(입법예고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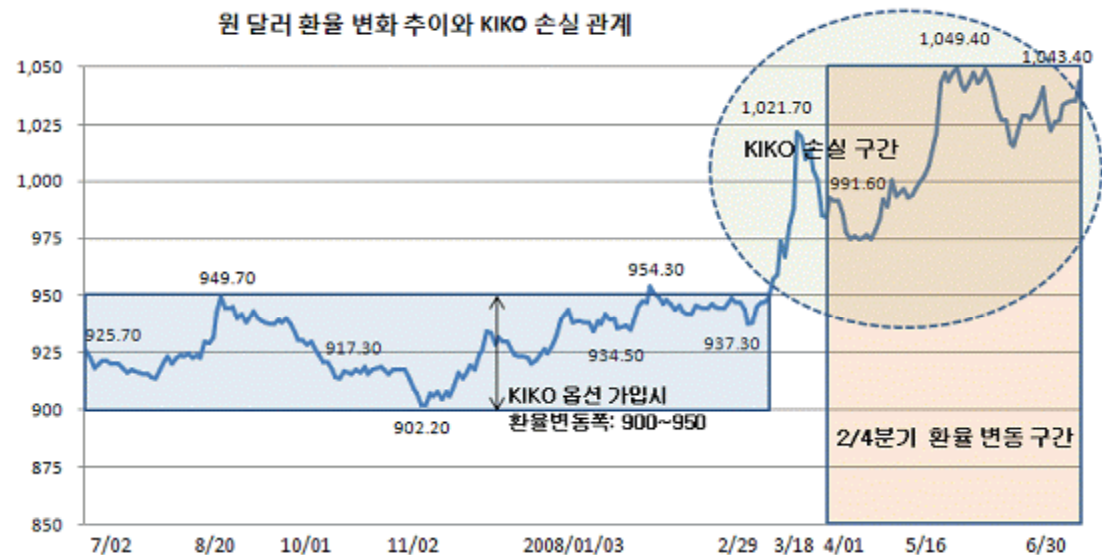
▶ 원-하청 업체간 교섭력 격차를 무시한 발상으로 중소기업들은 거부 입장

3. 중소기업에서 실체화될 실물경제의 타격

▶ 환헤지 상품 KIKO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

▶ 환율상승폭이 컸던 3/4분기에 접어들면서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증가(성진지오텍의 3분기까지 입은 누적손실액은 시가총액의 3배인 2,974억원)

▶ 08년 6월 공정위는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며 은행연합회의 손을 들어줌. 현재 13개 은행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청구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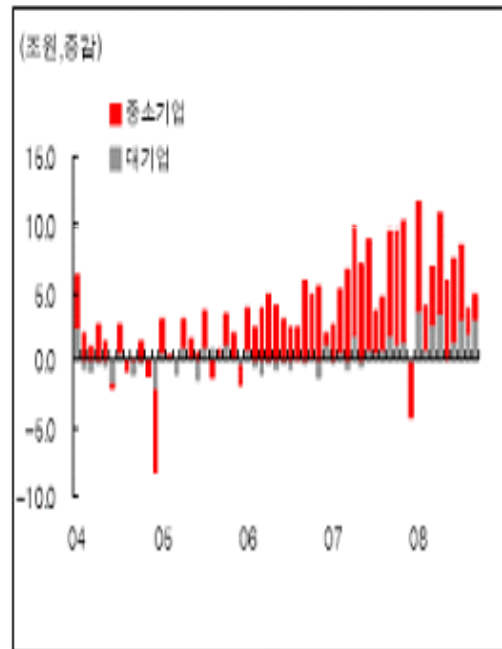
3. 중소기업에서 실체화될 실물경제의 타격

▶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금리상승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위기 가중(중소기업 대출증가율은 2008년 7월 5.6%에서 8, 9월 1.8%, 1.9%로 급격히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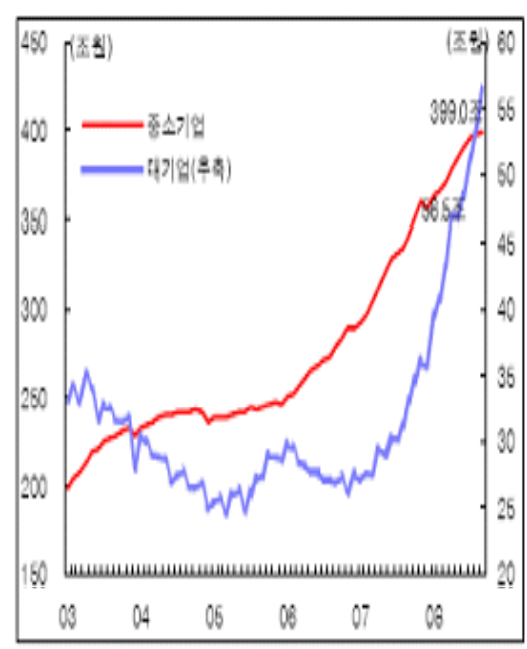
▶ 은행은 유동성 해소를 위해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 회수를 검토하는 상황

▶ 중소기업 연쇄도산은 고용에 미치는 충격 파가 클 뿐 아니라 은행 부실로도 확대될 수 있음

은행의 대·중소기업 대출 증감추이(순증감)



은행의 대·중소기업 대출 증감추이(진액기준)



자료: 한국은행

* 중소기업연구원 통합자료 재인용 2008/10

Ⅱ. 내수기반 없는 수출경제의 취약성 노출한 실물경제

1. 어두운 2009년 경제전망

2. 시작된 수출둔화와 그 영향

3. 중소기업에서 실체화될 실물경제의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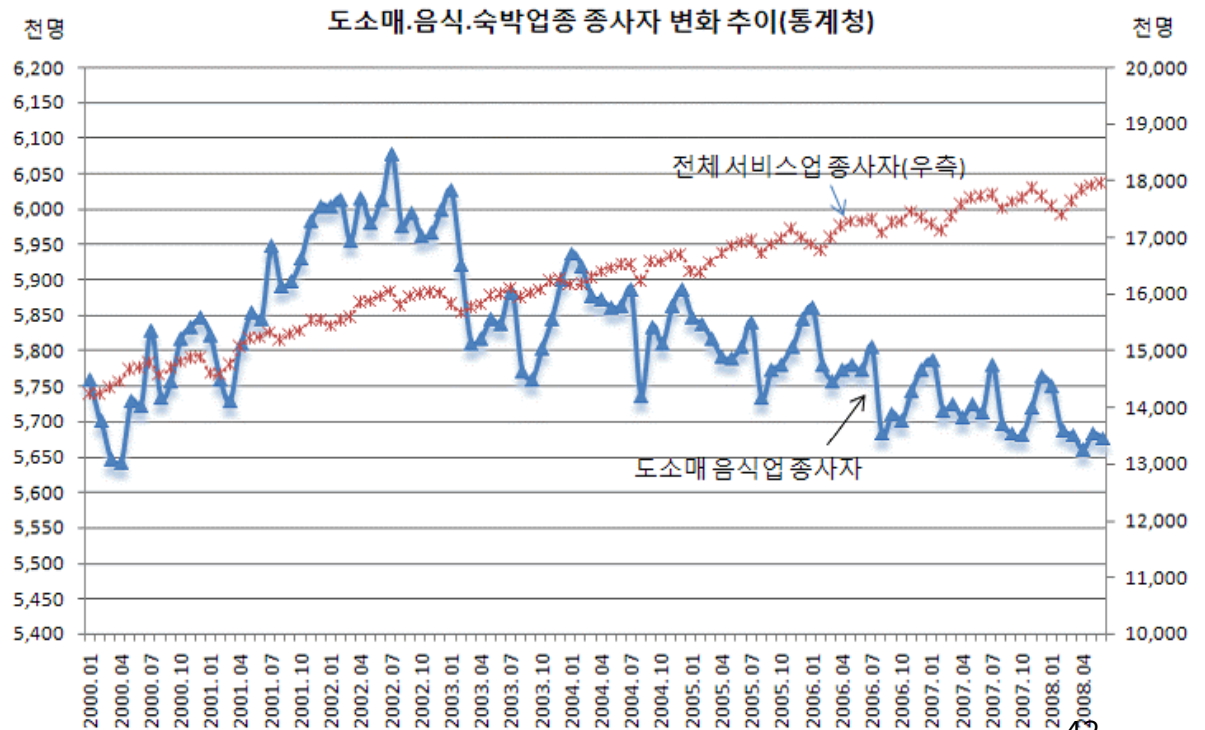
4. 이미 구조 조정된 자영업의 재구조조정

5.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미칠 고용축소 충격

4. 이미 구조 조정된 자영업의 재구조조정

▶ 정부의 농정 포기정책과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유입에 이어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자영업인 만들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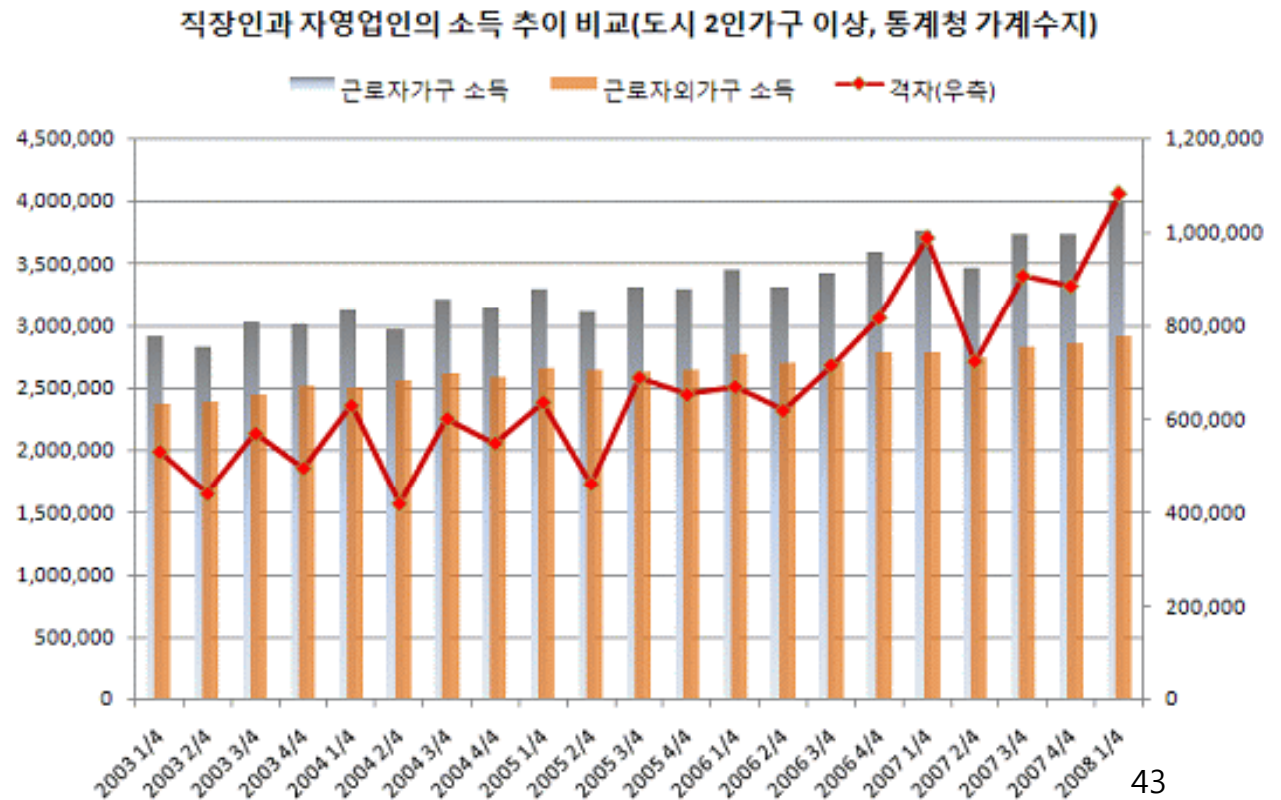
▶ 시장수요를 넘어서는 자영업의 공급 확대와 경쟁의 심화로 소득은 심각하게 감소(직장인과 자영업인의 소득역전)



4. 이미 구조 조정된 자영업의 재구조조정

▶ 자발적인 전문직 자영업이 아닌, 영세한 도소매 서비스 자영업이 전체 취업자의 28%에 달하는 기형적 산업/노동구조 형성(선진국의 2배 이상)

▶ 외환위기 이후 초과잉/영세 상태로 전락한 자영업은 03년 카드대란으로 1차 구조조정, 06년 이후 다시 2차 구조조정에 처함



Ⅱ. 내수기반 없는 수출경제의 취약성 노출한 실물경제

1. 어두운 2009년 경제전망

2. 시작된 수출둔화와 그 영향

3. 중소기업에서 실체화될 실물경제의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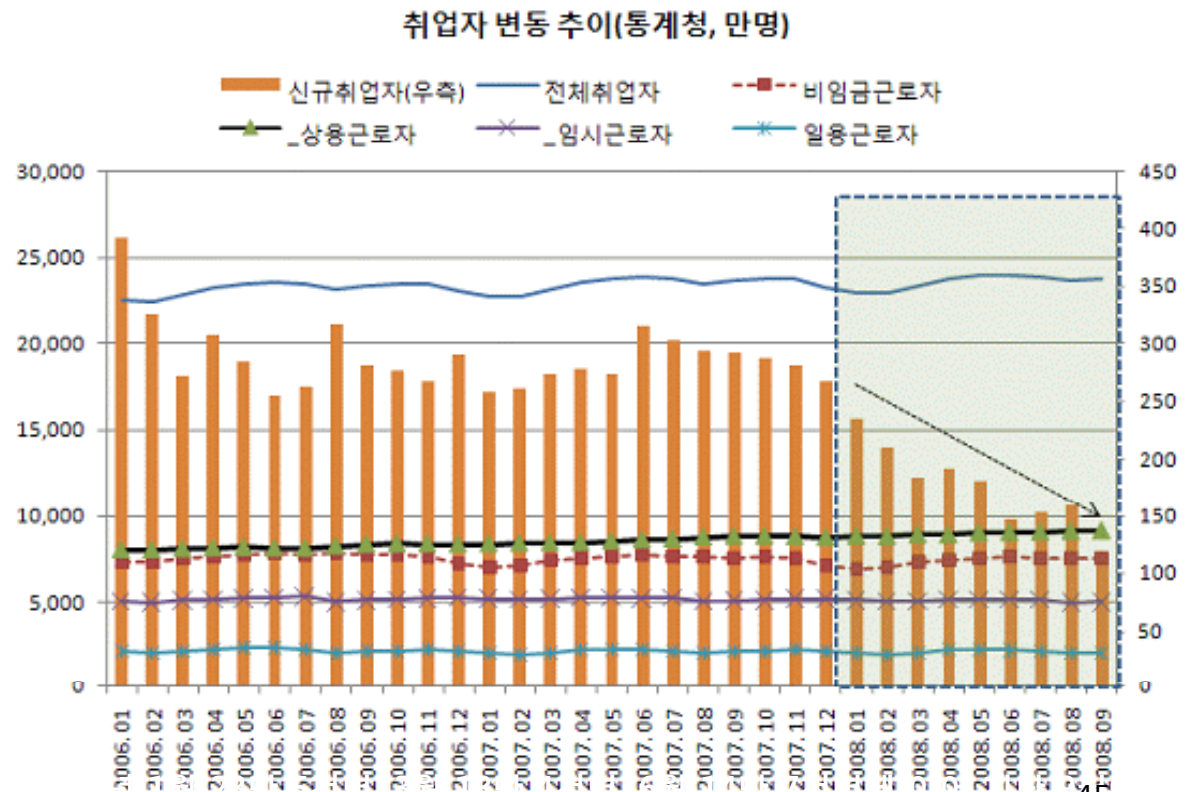
4. 이미 구조 조정된 자영업의 재구조조정

5.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미칠 고용축소 충격

5.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미칠 고용축소 충격

▶ 지난해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신규취업자 감소추세가 올해 들어 더욱 가속화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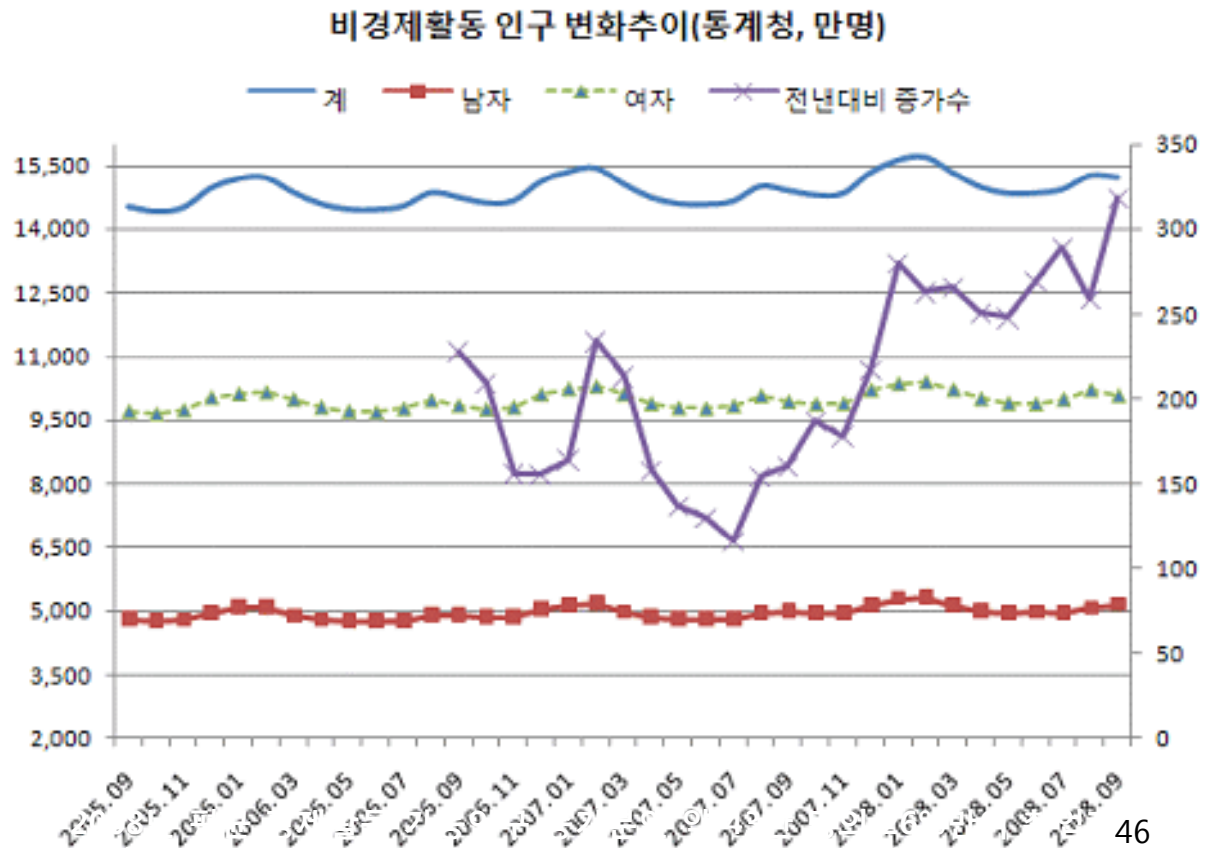
▶ 올해 고용창출력 악화의 원인은 사업자서비스 부문의 고용악화. 미국 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취업자 감소를 초래



5.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미칠 고용축소 충격

▶ 고용창출력의 감소가 실업자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은 채 곧바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증가와 남성 장년층의 '그냥 쉬었음' 증가가 눈에 띈('그냥 쉬었음' 인구는 2007년 현재 130만 명 이상이며 80%가 남성)



5.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미칠 고용축소 충격

- ▶ 외환위기 이후 여성 취업자가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 '좋은 일자리'가 줄고 '나쁜 일자리'는 소폭 늘었음을 반영
- ▶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핵심 노동계층과 청년 노동계층의 노동력 확대가 용이하지 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이 확대되었다는 추론이 가능
- ▶ 그러나 올해 들어 여성노동력의 고용지표들도 악화되기 시작(2003년 이후 최초로 고용률 하락). 만일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고용사정이 반영된 결과라면, 기업 줄도산 우려

- 결론 -

- ▶ 실물경제 하락이 본격화될 2009년 초에는 중소기업과 건설업의 비상경영, 감산, 인력조정 등이 진행될 수도 있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됨

에필로그.
위기를 구조전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이슈

1. 외부 금융충격을 완충할 시스템의 필요성

▶ 외환거래를 안정화시킬 시스템 기제의 필요성

- 외환거래법에 규정된 세이프 가드 활용한 외환통제
- 외화가변예치제도 도입으로 단기적 대규모 외환 반출입을 제어
- 적절한 수준의 관리변동환율제로의 전환

▶ 자금중개기능으로 재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은행 시스템

- 정부 구제를 조건으로 배당금 지급 금지, 일정기간 대주주 주식매각 금지
-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부활, 연기금 통한 지분 매입
- 파생상품에 노출된 펀드 판매 원칙적 금지

▶ 자본시장의 탈동조화와 직접 금융으로서의 역할 확보

-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부활
- 외국인 단기 차익매매에 대한 자본 이득세 부과
-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현금배당 중단
- 기업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역류 방지책
- 자본시장 통합법 무기 연기, 헤지펀드 허용 유보

2.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침체 대비

▶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생존기반 확보

- 납품가연동제 법제화, 중소기업청 산하 원가조정 센터 설치
- 중소기업 지원 기금 조직 설치해 정부재원으로 대규모 기금 조성
-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민영화 재고
- 카드수수료 인하 강제

▶ 고용을 통한 구매력 창출과 내수 진작

- 건설공사 보다는 대규모 사회서비스 사업 시행
- 실업급여 기간 연장
- 청년실업자와 재취업자에 대한 임금 지원금액을 확대

▶ 시장에 대한 국민적 발상의 전환

-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공론화와 국민적 동의 확대
- 노동조합은 개별 이익을 벗어나 국민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함